

한번, 부실선거관리 선관위 상대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 이번 국정원, 한국인터넷정보원, 선관위 3개 합동으로 '23.7.17~9.22에 걸쳐 진행한 합동 보안점검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인명부시스템 · 개표시스템 · 사전투표시스템 등에 다수의 해킹대응 취약점이 발견되었다.('23.10.10 국정원, 한국인터넷정보원 발표 보도자료 참조)
2. 선관위는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 해킹 피해 여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문제없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 등을 추가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23.10.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보도자료 참조).
3. 이에 한번은 선관위가 실제로 선거시스템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직무유기 내지 중대한 업무상 실책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선관위에서 밝힌 것처럼 내년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시스템의 해킹 등의 취약점 대응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외부 또는 외부 국가에 의한 '해킹' 이력 내지 '해킹 시도' 이력, 선관위를 상대로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할 방법과 그 계획 및 조치의 진행정도, 추가하는 보안장비의 내용과 그 계획 및 조치의 진행정도, 부실 관리 책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 관련 예산, 인력 확보 계획 및 그 진행정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023. 11.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